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3월 31일(주일) 제1239호



오늘은 CGNTV 개국 14주년

국내 캠퍼스 기념행사 ... 특집 다큐 '낮은 곳에서 피는 봄' 방영 선교사후원 저금통 수거, CGNTV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오늘(31일) CGNTV 개국 14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열린다. 선교사 후원 저금통 수거, CGNTV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위한 'CGNTV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등이 실시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CGNTV 개국 1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이 방영된다. 기독교가 주축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뜻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9일(금)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CGNTV 개국 1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이사 이용경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CGNTV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CGNTV 개국 14주년 감사예배는 문영재 목사의 찬양, 배종수 장로의 기도, 김혁건 성도의 특송, 엄재준 집사의 간증, 14주년 개국 축하영상 상영,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정상건 장로의 축사, 이용경 대표의 감사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가 이제껏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잘 조명해

왔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 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용경 장로는 "CGNTV가 개국 14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관련기사 8면>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막 오른다

4월 3~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

드디어 이번 주 2019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이 막 오른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접수데스크나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회복축제 참가자들은 집회 첫날(4월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 마련되는 접수데스크에서 이름과 연락처 뒷자리로 등록 확인을 한 다음 교재와 명찰을 수령하면 된다. 본

당 입장은 오전 9시 20분부터 가능하다.

회복축제 기간 동안 자모실과 탁아실이 운영된다. 36개월 미만 유아를 동반한 참가자들은 자모실,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는 탁아실에 맡기면 된다. 자모실과 탁아실은 본관 2층에 있다.

회복축제 기간 동안 교회주차장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고,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이촌역을 오가는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셔틀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이촌역 4번 출구에서 타면 된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박성심 사모(심리치료사), 채규만 교수(중독치료 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등 치유와 회복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그 누구도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면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355, 3532

4월 15~19일 고난주간 심야예배

오후 9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

2019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오후 9시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회개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할 수 있

다. 또한 매일 한 끼 이상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미디어 금식도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월부터 예배 중 입출차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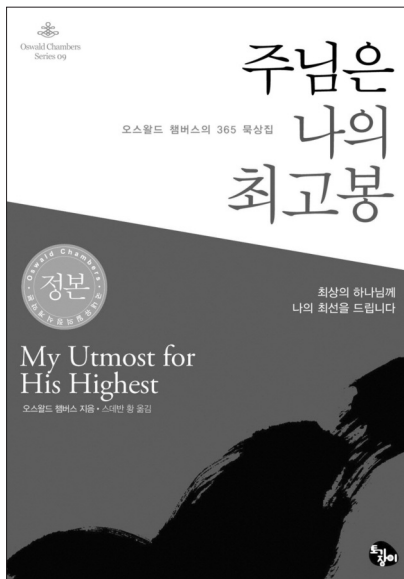
4월 7일(주일)부터는 예배 중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골프장 주차장 입출차를 할 수 없다. 종일 주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출차 해야 한다.



책 읽어주는 목사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저 | 토기장이 | 12,000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우연히 교회 서점에 들렀다가 눈에 띄어 구입하게 된 책이다. 언뜻 보기에는 짧은 성경말씀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 가벼운 묵상집 같았다. 일별로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그 책을 보면서 그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기로 했다.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있던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저자 챔버스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생생하게

전달됐다.

나는 이 책을 읽을수록 챔버스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10대 소년 시절 스필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에딘버러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1915년부터 이집트 자이툰에서 군인들을 위한 사역하던 중 1917년 맹장파열로 43세 젊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났다. 그가 떠난 이후 그의 아내 비디 챔버스가 남편의 설교문을 모아 40여 권의 책을 펴냈다. 그 중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독자들로부터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의 연보를 보면서 43세에 이렇게 깊은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묵상이 담긴 이 책은 두 번 읽고 있는 지금도 지겹지가 않다. 깊은 우물에서 건져낸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7월 20일에 해당하는 ‘주님 앞에서 걷는 삶’이라는 제목이 달린 글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걷는 데에는 스릴이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힘을 소유한 것입니다. ‘걷는다’는 단어는 성경

에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 1:36).

성경에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선명한 실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되라’고 하지 않고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월 16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십시오’라는 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은 평범한 유년시절로 이어집니다. 변화산 상의 위대한 기적은 귀신 들린 골짜기에서 사라집니다. 부활의 영광은 해변에서의 아침식사로 이어집니다. 이는 절정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사역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진정한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묵상이 담긴 챔버스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때로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한 전율을 느낄 때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우연히 구내서점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다. 그 집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꼭

선물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셨다.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했다. 이럴 수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었다. 이 책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은 내가 많은 사역에 지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셨다. 교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분주함이다.

특히 성도들에게 ‘저 목사님은 분주하고 워낙 바빠서’라는 인식이 생기면 곤란하다. 바쁘고 분주한 교역자에게 어느 누가 선포 다가올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항상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는 책을 가까이 두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싶은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질문: 예수만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나요?

답: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아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은 병과 죽음이 없는 더 큰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둘 다 맞다”고 대답하고 싶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많은 예가 있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와 행동을 통해 아주 오래된 불치병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 고백의 기도를 통해 질병을 고침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사건을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이 나온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리라”(막 5: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하나님의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셨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재창조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지 않으셨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알고 춤을 추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질병을 그대로 지니고 죽어가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역사한다. 병원선교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의술의 한계를 뛰어 넘어 불치의 질병이 고침 받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 사건이나 죽지 않고 승천하는 엘리야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믿음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의 믿음도 있는 것이다. 성도라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죽어도 사는 믿음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6).

잠시 병 고침을 받았다 해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셨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싶다. 첫째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축복이다. 예수님은 33세 짧은 삶을 사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계 21:4).

김정숙 목사
(삼성서울병원원목,
온누리호스피스 스쿨)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확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과학적 진리, 신학적 사변, 철학적 논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각 개인에게 매우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대에도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듣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말씀에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음성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난 뜻을 분별해서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영역을 우리의 자유에 맡기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지혜롭기를 기대하시지만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왜곡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QT(Quite Time)’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눈과 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제목을 아뢰고 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기도의 본질과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하면 그 봉사와 헌신에 독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종교생활이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위험한 삶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중요한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정반대입니다. 듣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은 들을 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내 영혼에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해석으로 판단하면서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을 가지고 투쟁하는 투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진화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삼상 3:1~14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삶에서
듣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아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가? 당신은 주님의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주님과 이야기 하며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듣고, 말씀드리고, 순종하며 또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없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7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힘들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거나 상처에 깊이 얽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또 다른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증거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놀랄 정도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까닭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할지라도 죄와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옛사람을 못 박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섬기는 자리에서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뒀습니다”(삼상 2:11).

사무엘상 2장 17~18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하여 사무엘을 설명합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베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삼상 2:17~18).

엘리의 두 아들은 부패하여 여호와와 제사를 업신여겼지만 소년 사무엘은 마땅히 입어야 할 섬기는 종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와 사무엘도 비교합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2-3절).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이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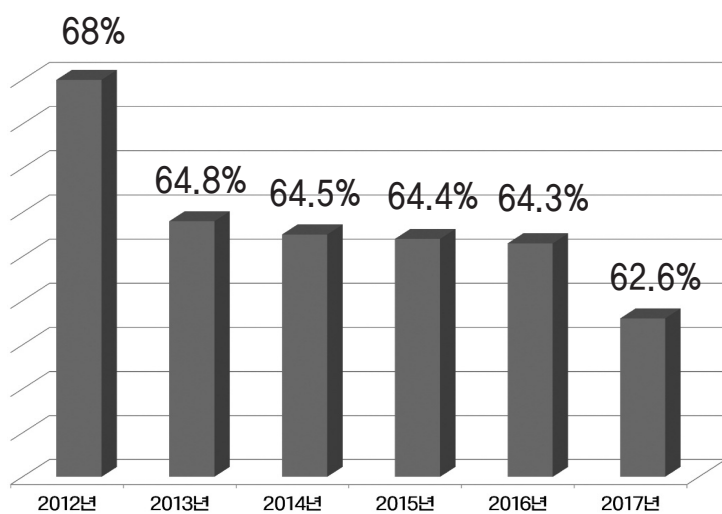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극심한 취업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 일과 직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상반기 공채 시즌이다.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부푼 꿈을 안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넣고 있다. 하지만 핑크빛 기류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청년 취업률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실업자가 33만6,000명이나 된다. 이는 2000년 교육별 실업자 통계 조사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크리스천 청년들이라고 극심한 취업난을 피해 갈 수 없다. 어쩌면 취업하기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회사’라는 조건이 하나 더 따라 붙기 때문이다. 실제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일 근무가 없는 회사, 회식(술)을 강요하지 않는 회사 등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그렇다고 취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저래 사면초가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



“계속 되는 불합격 통보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J자매(27)는 상실감에 빠져있다. 계속 되는 취업 불합격 통보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다. 간절하게 일하고 싶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으니 탄식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비단 J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취업률이 5년 연속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12년 68% 이후 2013년 64.8%, 2014년 64.5%, 2015년 64.4%, 2016년 64.3%, 2017년 62.6%로 꾸준히 하락 중이다.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사람인(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 구직자 4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예상 구직난’ 조사에서 청년들의 눈물나는 노력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청년 구직자들은 심화된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이 낮춰 입사지원’ (54.2%), ‘지원 횟수를 더 늘릴 예정’ (51.8%), ‘자격증 등 스펙 향상에 집중’ (36.3%) 등을 선택했다. ‘공무원으로 진로 변경’ (8.1%)이라는 답변도 꽤 있었다.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K형제(28)는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꿔 3년째 공

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난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쩔 때는 제가 되지도 않을 시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부모님께 죄송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니다. 그 끔찍한 취업준비 세계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상당하다. 지난해 7월 사람들이 구직자 762명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 후 입사포기 경험’에 대해 조사했는데 기업에 최종합격을 해본 취업준비생(648명) 중에서 61.4%가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이 입사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직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서’ (35.9%, 복수응답)였다. ‘회사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33.2%), ‘연봉 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 (2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자매(25) 역시 직장에 입사했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다시 취업준비생이 되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 적성과 너무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퇴사를 하고 더 좋은 곳을 찾고자 했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기도 해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J자매(30)는 높이를 낮추고,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

한 것 같다고 했다. J자매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높이를 낮춰 학원에 취업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우연한 기회로 학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학원보다 학교가 더 안정적이니까 임용고시를 다시 준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학원도 학교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보다 적은 수의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니까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깝게, 더욱 집중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

물론 J자매의 경우처럼 모든 청년들에게 높이를 낮춰 취업하라고 권할 수는 없다. 높이를 낮춘다고 청년 취업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일과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일하세.(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사역팀’ 김성주 집사(분당A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힘들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주 집사는 손해사정화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고현장에서 고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위로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현장이지만 고객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사고내용을 자세히 들어주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 대학청년본부장 김승수 목사가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류회사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입히시고 농부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먹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손길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직장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일하세. 사역팀 대표장로 김명현 장로는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어느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사역지가 됩니다. 조금 아쉽고, 조금 불편해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막 6:3). 당시 목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 일을 하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어부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 것 없는 직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마 4:19).

다윗의 직업은 남들이 보잘 것 없게 생각하는 양치기였지만 그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물맷돌을 돌렸던 그의 능력(삼상 17:34-35)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다(삼상 17:49).

예수님과 제자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성실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사용하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가져야 할 지혜와 태도가 이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직장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로 생각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과 성실로 임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전문가 기고

믿음에 근거한 소명의식, 크리스천이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연구소)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은 현실적으로는 경제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교육 풍토와 관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교육으로 인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기대와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의 기대가 맞지 않게 된 것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첫 번째 문제(경제문제)는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개인이 의식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이다. 나도 과거에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켜보니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무책임한 말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기가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 일을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애초에 진로교육을 제대로 해서 자신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또 그에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중요한 열쇠가 있다. 바로 ‘소명의식’이다.

1차 소명과 2차 소명

‘소명’이라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유하는 1차 소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아야 할 역할이나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2차 소명이다. 이 중에서 직업과 관계되는 것을 직업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소명을 받았다. 1차 소명은 공통되지만, 2차 소명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진로를 준비하다보면 아무래도 직업



“ 크리스천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다는 소명의식이다. ”

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된다. 돈을 많이 버는 일, 안정된 직장,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다보니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어진 일자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강제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능이나 능력에 적합하게 부르신다. 또 실제로도 필요가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으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재능과 적성에 맞는 일이 경쟁이 치열해서 얻기 힘들 수도 있고, 실제로도 필요가 있는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별 볼 일이 없으면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일에만 소명을 적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직업에도 적용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만 이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크리스천 중에는 회식(술) 같은 것이 없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직장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주님은 모든 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소명은 한 번이다. 그러나 2차 소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주신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부른 사람이다. 자신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의 최종적인 소명은 애굽 총리였다. 그러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부르셨고, 감옥으로 부르셨다.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노예가 되게 했고, 바로 왕의 관원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 두 경우 모두 억울한 상황이었고, 요셉 본인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잘 몰랐지만 그가 노예가 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었고, 감옥에서 죄수가 되는 것 역시 소명이었다. 나중에 형들을 향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창 50:20)라고 말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나 죄수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인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 소명을 통해서 새로운 소명을 이루셨다. 다윗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 이후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첫 번째 일은 목동이었다. 그는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 과정에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예상하고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다. 단순히 목동으로서 양들을 땀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목동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한 셈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승리 덕분에 사울 왕의 측근에서 일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생애를 돌아켜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목동으로 불러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고, 골리앗과의 전투로 불러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다윗에게 목동은 처음 받은 소명이었고, 골리앗과의 전투 역시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이다.

나의 생애를 돌아봐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다. 나는 엔지니어로 일하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 목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아무 의미 없는 직업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엔지니어로 생활하면서 직장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엔지니어로 부르셔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심지어는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하다가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도 했다. 그때의 아르바이트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나 선교를 할 때만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넓혀서 세속 사회의 직업도 그 일이 만족스럽거나 보람을 느낄 때만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그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면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세속 직장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직장은 소명이라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과 영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중에 돌아켜보면 분명히 알게 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켜보고 깨닫게 될 것을 미리 인식한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까지도 초라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서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 내게 맡겨지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게 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세속 문화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곳을 선교지로 삼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어야 해결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다는 소명의식이다. 믿음에 근거한 소명의식이야말로 크리스천이 가지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온사랑합창단, 또 하나의 꿈을 꾸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 취득

온사랑합창단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이 활동에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했다. 지금 온사랑합창단은 관공서, 학교, 기업 등지를 다니면서 감동을 수놓은 공연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심어주는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온사랑합창단이 제6회 전국발달장애인 합창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

“야. 이번에는 네가 애 때려봐! 어서! 뭘 기다려! 때려! 더 세게!”

지난 2월 21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재활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재활교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발달 장애인들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부추겼다. 발달 장애인들은 교사의 지시에 숙절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 나타난 것처럼 발달 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도 서툴러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잦다. 발달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하루 빨리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보호 장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도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온사랑합창단이 새롭게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름은 ‘온사랑합창단’

온사랑합창단은 공중과 방송에도 출연하고, 여러 합창대회에서 입상했을 정도로 실력 있는 합창단이다. 지난 2011년 6월 창단해서 지

금까지 MBC 바보나눔 스페셜콘서트, 제19회 전국지적장애인 합창대회, 수안보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다. 온사랑합창단이 실력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합창단을 꾸리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온사랑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감동이었다. 문소현 총무는 이렇게 간증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온사랑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신만의 음정과 박자로 소리를 냈었어요. 다른 단원들이 내는 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화음 연습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한 단원으로 성장했는지 보세요. 모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이에요. 곁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들은 감동이자 은혜 그 자체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만으로도 바쁜 온사랑합창단이 새로운 꿈을 꾸며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온사랑합창단 단원 13명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비장애인들을 찾아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은 인식개선 교육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비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익이다.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온사랑합창단은 학교, 관공서, 기업 등지에서 한 해 16회 이상 공연을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지적장애인협회, 송덕여자고등학교, 구룡중학교, 마장중학교, 태안문화예술회관, 건국대학교병원, 삼성병원, 국회의원회관, 여주 소망교도소 등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발달장애인들이 선보이는 공연 그 자체가 비장애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하는데 온사랑합창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물꾸러미를 풀어놓는다. 공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는 것. 온사랑합창단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공연과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함께 받은 비장애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사랑합창단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돈은 손길들도 많다. 교사와 부모는 물론이고 공동모금회도 도왔다. 지난 2월 온사랑합창단은 온누리복지재단을 통해서 공동모금회 사업비를 받았다. 그 후원금으로 단원들에게 스피치 교육, 무대매너교육, 음악 기초이론, 합창수업을 통한 연주자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헌신, 변화를 이끌어내다

하나님이 온사랑합창단에게 부여하신 은혜가 또 있다. 온사랑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변화된 발달장애인 단원들이 너무 많다. 이재훈 형제(20세)도 그 주인공이다. 말끝이 흐리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었다.

“온사랑합창단에서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합창을 열심히 연습하고, 선생님 자격증(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도 받았어요. 지금보다 성악을 더 열심히 연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김래영 자매(26세)는 온사랑합창단만큼 든든한 안식처가 없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찬양을 불러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온사랑합창단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

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이예진 자매(24세)는 고등학교 때부터 온사랑합창단에서 활동했다. 온사랑합창단에 처음 참여할 때만 해도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적응했다.

“온사랑합창단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씩씩하게 노래도 잘 부르고 있어요. 앞으로 성악을 더 잘하고 싶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싶어요. 멋진 성악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온사랑합창단이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보이지 않는 섬김이다. 교사들의 헌신이 가장 빛났다. 온사랑합창단 교사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의 온사랑합창단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사랑합창단 단원 중에는 소란을 피우거나 연습에 집중하지 않는 이가 한 명도 없다. 부모들도 온사랑합창단 교사들이 보여준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다. 박주희 집사(마포공동체)는 딸 이예진 자매가 온사랑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놀라게 변화되었다고 했다.

“예진이는 다른 발달장애인 친구들에 비해 구강구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온사랑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발성과 호흡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고요. 의사표현도 명확해졌습니다. 전에는 좋고 싫다는 표현을 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생각을 똑 부러지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온사랑합창단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배병준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는 자신의 자녀가 온사랑합창단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아이가 온사랑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이가 타인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회성도 생기고, 신앙도 성장했어요. 온사랑합창단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사랑합창단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다.

문의: 010-8784-6695

양육에 목말라 있는 교회들 찾아간다!

대외사역팀, 500곳 넘는 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전수

일대일 제자양육이 온누리교회를 뛰어 넘어 한국 교회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대일사역본부 대외사역팀이 양육에 목말라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하고 있다.

대외사역팀으로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받은 교회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대일 대외사역팀에 대한 감사와 칭찬뿐만 아니라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순기능이 이어지고 있다” 등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2017년)’에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참여의향’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 78%가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양육과 교인 돌봄(26%)’이 ‘구제와 봉사(39%)’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양육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교회에는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체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교회

에는 누군가 건강한 양육 프로그램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 성도들의 영성이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이다. 일대일 대외사역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양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섬기고 있다. 1997년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태동한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온누리교회를 뛰어 넘어 온 누리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500곳이 넘는 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정착시켰다.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타교회로부터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심사과정



일대일사역본부 대외사역팀은 양육에 목말라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해주고 있다.

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 다음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있다. 물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일대일 대외사역팀을 통해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 받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까지 변

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최승운 집사(성덕중앙교회)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강조했다.

간증

일대일 제자양육은 필수 코스

2008년 일대일 제자양육을 처음 받았다.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싶었다. 우리 교회에도 일대일 제자양육 같은 양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월곡역 부근에서 나의 일대일 양육자로 섬겨주셨던 온누리교회 전태경 장로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 장로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곧바로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을 연결해주셨다. 그렇게 2016년 9월부터 장위감리교회에서도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장로님, 권사님 등 교회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했다. 리더십들은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이수하고 다른 성도들의 양육자가 되어주셨다. 지금 장위 감리교회에서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성도 40명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있는 성도도 17명이나 되는데 4월 2째주면 수료하게 된다.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이 뿌려 주신 양육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장위감리교회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일대

일 대외사역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이 탄탄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훨씬 끈끈해졌다. 성경지식을 나누는 것을 뛰어 넘어 진솔한 삶을 나누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다. 한 성도님 가정은 오랫동안 부부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서로의 연합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 분위기가 한층 평화로워졌다고 고백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3040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과 공동체와 하나 됨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주는 유익이 너무 커서 장위감리교회에서는 임직을 위한 필수 코스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필성 목사(장위감리교회 담임)

내가 받은 사랑을 동반자에게!

2년 전 성덕중앙교회 성도들은 말씀묵상과 기도, 제자훈련과 양육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했다. 때마침 담임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셨다. 그때부터 성덕중앙교회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12명이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으로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매 과정을 시작하기 전 양육자와 함께 그리기 시작한 키(key) 그림이었다. 키 그림은 양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계도와 같았고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배의 선장은 창조주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인생 여정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 양육자님께서는 특별한 열매가 없어도 선교지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가장 큰 유익은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눔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열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나는 두 가지 질문에서 대답이 망설여지기도 했다.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 왜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겠다고 결단했다.

어느덧 내가 일대일 동반자에서 양육자가 되었다.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의 섬김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동반자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아낌없는 헌신으로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일대일 대외사역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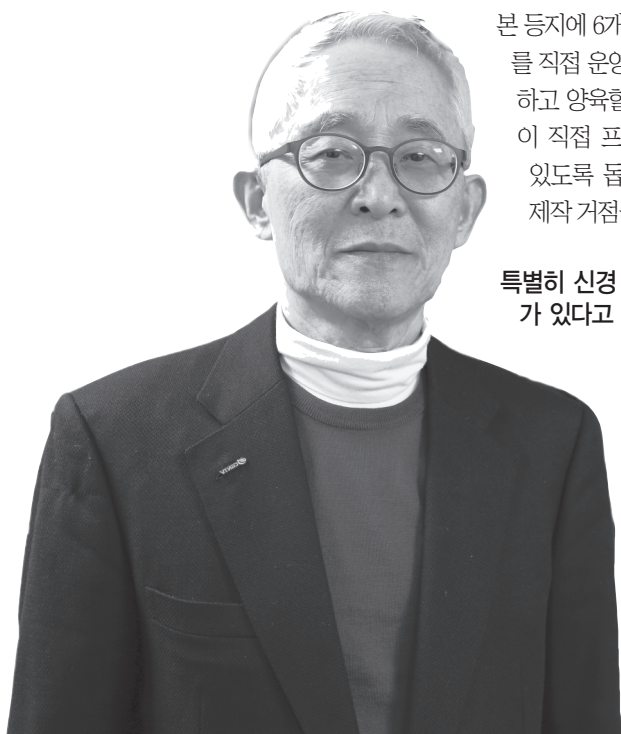
/ 박재역 장로(성덕중앙교회)

개국 14주년 맞이한 CGNTV 이용경 대표와 함께

“CGNTV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 목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 시청자 맞춤형 채널 운영 가정예배, 동성애, 창조 관련 콘텐츠도 제작

CGNTV가 개국 14주년을 맞이했다. 선교사들을 위한 위성방송으로 시작한 CGNTV가 지금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교교육방송으로 우뚝 섰다. 선교사부터 넉크리스천까지 CGNTV가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가슴에 잊지 못할 감동을 새기고 있다. CGNTV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비상을 꿈꾸고 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에게 올해 주요계획과 특별히 신경 써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용경 장로는 CGNTV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본 등지에 6개 제작 거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파트너를 발굴하고 양육할 계획입니다. 현지 파트너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영할 수 있도록 돕는 동안 CGNTV는 또 다른 제작 거점을 개발할 것입니다.”

특히 신경 써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CGNTV가 올해 처음으로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나오는 드라마 ‘고고송’을 제작·방영했습니다. 본격 러브액션드라마입니다. 액션이 없는 데 러브액션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러브액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고고송에는 결혼, 사랑, 연애, 출산, 관계, 장애,

치매 등 이 시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방영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스포츠 선교의 가능성과 이영표, 린드블럼, 트레이 힐만 등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력을 다룬 작품입니다. 교계에서는 다큐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을 다양한 선교와 전도 방법을 제시한 탁월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CGNTV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작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정예배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시간을 맞추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CGNTV가 제작한 가정예배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CGNTV 직원들부터 가정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CGNTV를 시청하는 모든 가정의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

정에서 자라는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성애’와 ‘창조’입니다. 최근 성소수자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 기조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CGNTV는 이 시대가 동성애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변증론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좋은 콘텐츠도 만들 것입니다. 창조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기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진화론에는 허점이 많고, 증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창조를 주장하면 비논리적이고, 진화를 주장하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GNTV는 크리스천과 넉크리스천들이 창조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집중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에 집중(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CGN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오랜 시간 TV앞에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일일 조회수가 50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세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공간입니다. 요즘 1020세대들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정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다음세대 대표 플랫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CGNTV는 LIVE 방송을 비롯한 대표적인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세대, 나침반, 창조과학 등 21개 채널이 있는데 이 중 4개 채널(CGNTV, SOON, KNOCK, CGNTV KIDS)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GNTV는 선교사를 위한 방송이자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이것이 CGNTV의 정체성입니다. CGNTV를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CGNTV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후원할 만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GNTV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CGNTV 개국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리더십들의 사랑과 관심, 후원과 기도 덕분에 CGNTV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GNTV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선교사를 위한 방송,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찾아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에 걸맞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CGNTV가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CGNTV는 올해 교회의 기초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CGNTV 해외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 CGNTV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9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에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대만, 일

CGNTV 주요 유튜브 채널



‘CGNTV’ 채널

CGNTV의 대표 채널, 순수복음부터 영적 회복을 위한 예배 라이브, 말씀 강해, 생명의 삶 QT 등의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다.



‘CGNTV SOON’ 채널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해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모아왔다. 성장, 신앙, 사랑, 찬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KNOCK’ 채널

5분 다큐 ‘미니휴먼다큐’, 신개념 미니시트콤 ‘미니콤’, 무한재생 음악 리플레이 ‘리플레이’ 등 모바일 맞춤형 영상 채널이다. 다음세대의 마음을 두드리는 영상들을 제공한다.



‘CGNTV KIDS’ 채널

자녀들을 위한 채널, 예수님이 좋아요, 어린이 워십댄스, 두란노 이야기성경, 바이를 피플, 어린이 뮤지컬 등 차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CGNTV 콘텐츠만 모아됐다.



유튜브 채널 구독방법

1. 유튜브에 접속한다
2. 검색창에 각 채널을 검색
3.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람설정을 한다

전문가 기고

“그 사람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친밀함 의미 알고, 구체화하고, 관계점검 해보기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감사연구소 G.Lab
대표)

“순식구와 서로 친밀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과 친밀하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대답이 떠오를까?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막상 친밀함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친밀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주는 모호함 때문일 수 있다.

최근 한 형제님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형제님의 공동체 팀장이 팀원들과 무척 친밀하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팀원들은 고개를 가우뚱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친숙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친밀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구체화함으로 서로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할 것이다. 평소 익숙하지만 잘 정의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가족, 순, 공동체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 18:24).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로 얻게 되는 안정감과 평안은 가족관계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모든 대상과 친밀해질 수는 없지만 현재의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를 떠올려보고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일상이 조금 더 희망차지 않을까? 매튜 켈리는 저서〈친밀함〉에서 추상적인 관계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체화하였다.

매튜 켈리의 ‘친밀함 7단계’

1단계는 ‘진부함’이다. 진부함은 일상에서 자주 목격된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마주친 동료와 “주말 잘 보냈어요?”라고 인사한다. 또 길을 가다 옛 지인을 만나면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언제 밥 한번 먹자”이다. 필자는 “요즘 매우 바쁘시죠?”라는 인사를 자주 듣고, 자주 묻는다. 교과서에 나온 예문도 아닌데 우리는 왜 너무나도 친숙하며 진부한 이 인사말을 자주 사용하는 걸까? 진부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다. 사람은 적응된 상태를 좋아한다.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적응되면 쉽게 그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은 첫 학기 어떤 친구와



어떻게 친한 그룹이 될지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적응이란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쉽게 밟는 관계의 첫 단계가 진부함이다.

2단계는 ‘사실’이다. 진부함의 단계보다는 조금 더 높다. 어느 정도 서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으면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사실의 단계가 진부함의 다음 단계인 이유는 마음을 조금 더 열어야 하고, 큰 어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학교에서 오는 길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는 딸의 말에 왜 만났냐고 말하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은 사실 그 자체에게 공격받을 일이 없어서 안전한 관계의 단계이다.

3단계는 ‘의견’ 단계이다. 이 단계는 친밀함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단계이다. 그 이유는 의견을 묻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더 높은 친밀함의 상태로 올라갈 수도, 진부함이나 사실 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소 게임을 즐기고, TV에 푹 빠져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의 상황을 떠올려보자. 방과 후 학원에 들렀다 집에 온 아들에게 엄마가 묻는다. “요즘 학원은 어때?” 이 진부한 물음에 아들이 통명스럽게 뻔한 대답은 “엄마, 나 학원 다니기 싫어. 힘들어. 안 다니면 안 돼?”이다.

이 상황에 엄마의 표정을 상상해 보라. 화가 난 표정으로 “너 정신이 있어? 다른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니는데 고작 수학 학원 다니면서 그것도 힘들다고 그만 다니겠다고? 집에서 온종일 게임만 하겠?” 이렇게 반응했다고 치자. 아들은 이후 학원 혹은 학원과 관

련된 엄마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그래” 혹은 “오늘 학원 다녀왔어” 정도의 진부함이나 사실만을 말하는 단계에 머물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다음 단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더욱 친밀해지려면

4단계는 ‘꿈과 희망’의 단계이다. 꿈과 희망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공동체에 어떤 바람이 있는지, 혹은 삶에 어떤 꿈이 있는지 등을 아는 단계이다. 그냥 듣기에도 의견보다는 높은 친밀함이 요구되는 단계로 생각되지 않는가? 상대방의 꿈과 희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 필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축구선수가 꿈이다. 아들에게 축구는 인생의 큰 관심사이다. 그런 아들이 안타깝게도 편식을 한다. 아빠 입장에서 3단계인 의견을 식사할 때마다 주는데, 어느 날 아들의 표정을 보니 경청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아들아, 아빠는 네가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불편한 것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먹는 것에서부터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야”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빠의 의견을 끝까지 잘 듣는 것을 경험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친밀하지 않으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친밀한 사이에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하지 않는다.

5단계는 ‘느낌’이다. 느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친밀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빠가 역사에 대한 교훈이 잘 녹아있는 좋은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온 가족을 이끌고 극장에 갔다. 영화를 즐겁게 보고 나온 아빠는 딸에게 “영화 어땠어?”라고 물었다. 이때 딸의 반응이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였다. 이때 아빠가 “응, 그랬구나”가 아니라 “뭐? 재미없어? 너 아까부터 팝콘 먹고 계속 졸더니 그러니까 재미없지. 내용은 기억하니?”라고 말한다면 이 아빠는 딸에게 의견(3단계)이나 사실(2단계)에 머무는 모습이 된다. 느낌의 단계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6단계는 ‘실패, 두려움, 상처’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을 벗으면 내면에 많은 상처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공동체에서 꺼내기 힘든 현재 혹은 과거의 상황을 기도제목과 함께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6단계의 높은 단계로 순식구들을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 높은 단계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친밀함을 떨어뜨리는 낮은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현 상황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진정 높은 수준의 친밀한 단계이며 함께 길을 걷는 동역자, 친구의 관계일 것이다.

7단계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전인격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단계이다. 6단계를 포괄한 단계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단계에서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고백이 선 생님에서 메시아로 변화된 것처럼 말이다.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높은 친밀함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각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통해 알게 하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한 단계 더 높은 친밀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기쁨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눈높이가 필요하다.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은 이용객들에게 하용조 목사 기념관, 도서관, 기념 채플, 묘소 등을 안내하는 자원봉사를 한다.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을 아시나요?

하용조 목사 기념관 안내해주는 자원봉사팀

Acts29비전빌리지(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번길 20)에 있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 하용조 목사 기념관, 하용조 목사 기념 채플, 하용조 목사 묘소)에는 1년 365일 하용조 목사를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하용조 목사를 그리워하고, 하용

조 목사의 선교정신을 기리는 이들과 동행하며 하용조 목사의 목회철학과 비전 등을 안내해주는 아주 특별한 자원봉사팀이 발족했다.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이다.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은 하용조 목사 기념관, 도서관, 기념채플, 하용조 목사 묘지 등을 찾은 이들과 동행하며 하용조 목사의 목회철학과 선교 비전 등

을 안내하는 자원봉사팀이다. 사역장로 및 사무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31-331-810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4월 10일 남양주 내적치유세미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내적치유세미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를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

이정선 사모가 ‘나는 누구인가’,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내적 치유의 원리들’, ‘방어기제와 세상 옷 벗

기’, ‘십자가에서의 내적 치유 1,2,3’, ‘용서’, ‘영적 전쟁’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특강도 있다. 이정희 권사(양재 상담실)가 ‘부부 갈등과 대화를 통한 회복’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31-565-9686

선교사를 위한 힐링캠프

4월 11~13일, 국내 선교지 탐방

2000선교본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4월 11일(목)부터 4월 13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전주, 광주, 여수, 순천 등지에서 진행된다.

선교사 힐링캠프에서는 국내 선교박물관, 선교사 묘지 등을 탐방하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휴식도 가질 예정이다. 스태프 포함 30명이 참석한다.

문의: 02-3215-3208

남양주M미션 교사 모집

남양주M미션이 5월 12일 오후 2시 제1빌딩 3층(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광릉대로 91)에서 개강하는 한국어교실과 기타 수업을 맡아 줄 교사를 모집한다.

이주민선교를 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어교실 교사로 선발되면 남양주시 광릉내읍, 진접읍, 오남읍 부근에 거주하는 이주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TOPIC(한국어능력시험) 수업을 진행한다.

문의: 010-3937-3927

3월 세례자

■서빙고	신서윤 170408	조석환 이슬아	장은호 730214	김하윤 170808	조영강 한채희	정아란 901227
권유현 780410	신동준 임미영	최연아 170606	조철진 810516	김진우 백경희	조아인 170531	장우창 840625
김영미 620122	안재이 170512	최용하 김혜원	유아	신재희 170220	조철진 엄혜진	입교
박승옥 500814	안성환 박영리	권승윤 171211	권현옥 오주희	신은섭 김아람	최강우 180720	박고은 871030
신명숙 651124	윤나라 170801	■양재	김미정 800604	안다소 170604	최동규 김연희	
이양임 370422	윤명석 송진숙	김미정 800604	김시현 180611	안광옥 박효정	최승우 170925	■허브
이재호 791127	전이도 171213	김하은 001126	김재동 박수영	이성현 180712	최형원 최미진	입교
이지은 810822	전덕우 한현정	양정은 951208	김재윤 170808	이현규 최단비	최승우 170925	김정림 950306
유아	조세현 170503	이상준 910629	김진우 백경희	이우림 180511	최형원 최미진	윤무중 990613
김다엘 170509	조민재 최은정	이희숙 490525	김주안 170913	이민형 김은미	■대청	
김형호 유경하	조아인 171003	임희수 760419	김동준 박지혜	조승아 170527	■여호수아	
					김나영 860223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4447	정예원	SNS	1134475	전정길	요셉	1134510	양용식	서초C	1134536	나수현	여호수아
1134448	이정민	SNS	1134478	김화심	강서	1134511	이지만	중종로	1134537	이원석	여호수아
1134451	허미순	부천 믿음	1134480	정성혜	Point5	1134512	조은진	서초A	1134538	김건우	여호수아
1134452	조재현	남양주B	1134481	장은영	인천 소망	1134513	김준수	서초A	1134539	이한나	여호수아
1134453	박은영	인천 소망	1134484	채송화	영등포구로	1134514	서소피	송파B	1134540	강선영	여호수아
1134454	곽희근	하늘	1134489	이진희	서대문	1134515	윤명진	S브릿지	1134541	윤태석	중종로
1134455	이유진	하늘	1134490	정석원	일산	1134516	안스데반	여호수아	1134542	윤정윤	강남D
1134456	김동현	하늘	1134491	강현아	마포	1134517	이기영	여호수아	1134543	김성진	부천 소망
1134457	허찬	하늘	1134492	최성옥	부천 믿음	1134518	소지민	여호수아	1134544	유덕재	J4U
1134458	이예진	하늘	1134493	함금식	인천 소망	1134519	김민호	여호수아	1134545	조인재	J4U
1134459	김경륜	하늘	1134494	권정민	수원 서누리	1134520	문기연	여호수아	1134546	서은정	J4U
1134460	김상민	고양은평	1134495	김재민	갈렙	1134521	박해운	여호수아	1134547	최유정	J4U
1134461	김지영	고양은평	1134496	권석인	갈렙	1134522	신성현	여호수아	1134548	김재남	J4U
1134462	최주원	Point5	1134497	이시은	갈렙	1134523	진서경	여호수아	1134549	홍효선	남양주B
1134463	나정윤	SNS	1134498	이현국	강남A	1134524	김태욱	여호수아	1134550	신미라	대진
1134464	박문수	SNS	1134499	장동연	인천 믿음	1134525	문희자	김포	1134551	김정인	고양은평
1134465	현지혜	강동 믿음	1134500	김형태	신용산	1134526	박완규	김포	1134552	김복희	중종로
1134466	DonaldJos	대진	1134501	조종현	하늘	1134527	이유민	여호수아	1134553	오연정	강남A
	hualWebwire		1134502	이진형	하늘	1134528	김문영	여호수아	1134554	대진 서누리	
1134467	이상엽	김포	1134503	이태영	하늘	1134529	이하은	여호수아	1134555	이원혁	부천 믿음
1134468	박현주	마포	1134504	민지훈	인천 소망	1134530	김태현	여호수아	1134556	김윤택	요셉
1134469	안선경	강서	1134505	황찬희	일산	1134531	김현경	여호수아	1134557	허병욱	요셉
1134470	김도형	강서	1134506	반선정	일산	1134532	김혜원	여호수아	1134558	이은영	요셉
1134471	이승경	관악금천	1134507	이형림	무공동체	1134533	황혜원	여호수아	1134559	임평화	요셉
1134472	장주환	무공동체	1134508	이미란	남양주A	1134534	이신영	여호수아	1134560	조예나	요셉
1134473	김도화	서대문	1134509	정은혜	서초C	1134535	김상희	여호수아			

두란노바이블칼리지 4월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4월 세미나가 개강한다. 크리스천 자녀양육 지침서 <성경적 부모교실> 저자 이기복 교수와 함께하는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가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예비)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교역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5만 원.

제2기 트라이앵글 지도자양성과정은 4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개최된다. 트라이앵글은 청년들에게 자기 자신, 이웃, 일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외의 교수(국민대, 청년트라이앵글 대표), 김민철 목사(남양주 언덕교회 담임), 한건수 대표(감사연구소, 국민대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나 청년부 리더십, 캠퍼스 선교사역자 등 청년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2만 원이다. 4월 15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3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5

■ 양재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민유영 성도(양재 헬로맘스쿨)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 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사 40:11).

이 말씀이 양재 헬로맘스쿨을 수강할 당시 가장 와 닿았다. 양재 헬로맘스쿨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엄마와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공동체다. 양재 헬로맘스쿨은 ‘임신·출산 후 스쿨’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래서 임신부와 초보 엄마들이 강의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미묘한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함이 있다. 온전히 엄마와 아기들만을 위한 은혜의 자리다. 나는 이 특별함을 양재 헬로맘스쿨 첫 강의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제껏 보지 못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아기가 피아노 다리를 만지면서 장난치는 동안 ‘힙시트’를 맨 채로 반주하시는 반주자님, 바닥에 누워있거나 기어 다니고 있는 아기들을 돌보며 찬양하는 엄마들, 몸은 무겁지만 열정적으로 모인 임신부들이 그곳에 있었다. 임신부와 태아에게 이만큼 복된 자리가 또 있을까? 주님께서 이곳에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함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총 6번의 강의도 모두 은혜로웠다. 임신과 출산, 아이가 태어난 이후 엄마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충실하게 배울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조원들과 함께 모여 앉아 양재 헬로맘스쿨을 들었다. 조원들 덕분에 조금 더 준비된 엄마,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임신부를 졸업하고 초보 엄마가 된 지금도 양재 헬로맘스쿨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이다. 첫 아이가 아플 때였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으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다. 그런 나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재 헬로맘스쿨을 통해 다시금 지혜와 힘을 공급해주셨다.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엄마이기도 하다. 그런 나에게 양재 헬로맘스쿨은 새 힘을 공급해줬다. 아직 양재 헬로맘스쿨을 모르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일정: 4월 5일~5월 10일
문의: 010-8889-6857

■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민음 형제(가명, 소망교도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처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낮익은 찬양이 떠올랐다.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 찬양을 읊조리며 가사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었다. 그 말씀은 진정 가물고 메마른 내 가슴에 내린 단비와 같았다. 세상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암흑처럼 새까만 세상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양육자님이 나에게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권하셔서 읽다가 은혜 받고 나중에는 필사까지 이르렀다. 내 평생 무엇보다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얻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롬 1:17).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와 닿던 날, 진실 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소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헤매던 못난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는 내 가슴속에 믿음의 작은 빛줄기 하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이보다 기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내민 손을 꼭 붙잡을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결코 두렵지 않다.

아내는 나에게 작은 꿈을 말했다. 퇴직한 후에 복음을 모르는 저 산골 마을이나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는 섬마을 등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양육 받는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한 예비하신 길 같은 느낌이 든다. 훗날 아내와 함께 전도할 때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으시도록 이곳에서 열심히 악기도 익히고, 찬양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오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같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가족들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기쁨이 생겼다. 무엇보다 이 부족하고 못난 양들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정성으로 섬겨주신 양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분야: 찬양 및 예배 인도, 일대일 제자양육
문의: 구자엽 팀장 010-4286-0078

■ 인천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이예찬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순장학교를 청년부 때부터 사모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꼭 수강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하고 더 준비된 상태에서 순을 섬기게 하셨다. 마음에 주신 소원을 언젠가는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순장학교를 수강하는데 가장 큰 부담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장님과 순모님이 순원들이 순장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돌봐주고 계셨다. 그 순장님 부부 덕분에 우리 부부도 마음 편히 순장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첫 강의부터 마음이 떨컸 내려앉았다. 그동안 순모임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나누는 것보다 순원들이 많이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많았던 것 같다. 순장은 말씀 준비, 사회자 역할, 마지막 정리 등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 이상으로 말

순장의 다짐

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또한 자녀들도 순예배에 참석하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순원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순장학교 마지막 시간에는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원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점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곳에 정기적으로 와서 공연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만났다.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간단한 청소만 하고 가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이외에도 선교사님들의 귀한 간증을 듣고, 온누리교회의 선교 시스템에 대해서 폭넓게 알 수 있었다.

‘순장은 온누리교회의 심장’이라는 구호를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겨본다. “순장의 다짐! 하나, 나는 순장이다. 순원을 치유하는 목자이다. 하나, 나는 순장이다. 순원을 섬기는 청지기다.”

일정: 4월 7일 ~ 6월 23일
문의: 032-437-9686

■ 양지 수요기도학교 스태프 간증



/ 김영선 팀장(양지 온누리교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양지 온누리교회 수요기도학교(이하 양지 수요기도학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자’는 비전을 품고 지난 3월 27일 처음 시작됐다. 양지 수요기도학교 스태프들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기도학교에서 알게 된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했다. 양지 수요기도학교에 참석한 모든 분이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양지 수요기도학교는 기도의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기도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학교이다. 황재명 목사님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김현미 목사님의 ‘말씀기도’, 박태영 목사님의 ‘성경적 기도원리’, 천태석 목사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도육환 목사님의 ‘주님의 기도’, 이상진 목사님의 ‘찬양기도’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양지 수요기도학교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양지 수요기도학교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도 있다.

스태프들은 양지 수요기도학교가 시작되기 두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었다. 매주 수요일 기도모임을 열고 양지 수요기도학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양지 수요기도학교에 60명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인원을 채워주셨다. 40년대 생부터 80년대 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양지 수요기도학교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한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더욱 더 많아지길 기도한다. 양지 수요기도학교가 중보자를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칼럼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김선호 장로
(강남D공동체)

올해 2월 22일 한 동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열렸다. 그 이유는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개최한 일부 학생들에게 한동대가 기독교 건축 이념에 따라 징계를 내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연내용이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한동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7일에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동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에 동성애 차별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었다.

이 두 사건의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대학교의 기독교적 설립 이념을 부정하고 통제하려는 데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현재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현 사회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성차별 방지를 표방하며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성차별 방지 조항을 넣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문제점 및 폐해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많은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 및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20대 청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조항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계속 제기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퀴어문화축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어린 청소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남미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교인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는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것으로 성적 중독이나 병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남색하는 자’, ‘남창’, ‘남자와 동침’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를 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도와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빠르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에이즈 감염, 동성애 청소년 증가, 성문란 행위 등의 폐해를 알리고,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사칼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김정숙 권사
(경기A공동체)

일하세. 사역팀은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터가 있는 분이나 일터가 없는 분 모두가 24시간 365일 호흡하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세. 사역팀에게 주신 멋진 표어이자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터와 일상 속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세. 사역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일하세. 사역팀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이었다. 바로 ‘일하세. 아카데미’와 ‘(GUM: Get Up in the Marketplace)예배’이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3년 전 미약하게 시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과도를 타게 하셨다. 지난 3년 동안 서빙고, 양재, 부천, 대전, 인천, 도곡교육관, 열반인, 시드니 온누리교회 등지에서 일하세.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 성령의 바람이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불어오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청년들이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확고하게 세우기를 바란다.

일하세. 사역팀은 매주 토요일마다 굿예배를 드리며 주께 나아가고 있다. 굿예배에서는 일하세. 사역팀 지체들 모두가 일터와 일상에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일터영성과 관련된 강의도 듣는다. 첫째 주는 ‘말씀 속으로’를 주제로 황재명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

해서 설교하신다.

둘째 주에는 ‘일상 속으로’를 주제로 재정과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셋째 주는 ‘문화 속으로’가 주제이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일하세. 사역팀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도전을 받고, 문화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넷째 주는 ‘일터 속으로’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방선기 목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일터에서 부딪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도 드린다. 많은 성도들이 굿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3년 전 일하세. 사역팀에 남편을 먼저 부르셨다. 나도 곧 남편과 함께 일하세. 아카데미와 굿예배를 섬기게 되었다. 1기 일하세.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동역자가 없어서 남편, 아들, 며느리 등 온 가족이 총동원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끌어 갈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동역하는 귀한 손길들을 붙여주셨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은혜로 맺어진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일터와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신다.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골 3:23).

신앙에세이

정한호 목사
(Pole2공동체)

사회가 첨단화되고 문명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삶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한 가운데로 내몰린다. 최근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화두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젊은이들은 한 번쯤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꿈꾼다. 한국 사회에서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군이 굉장히 단조롭다. 불안정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누구도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이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인간이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중략)”

우리의 영혼은 내일을 가늠할 수 있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그의 책 〈인생수업〉에서 두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두려움이란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False Evidence Appearing Real)이다.”

사람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은 언제나 실제와 같이 다가온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주시하기보다 비관적인 상황을 주목하는 연약한 존재다.

축구경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승부차기를 스포츠 과학으로 분석한 결과가 참으로 흥미롭다. 승부차기의 상황에서 �커는 골키퍼보다 심리적 압박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골키퍼는 골이 들어가도 잃을 것이 없지만 키크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축구계의 한 가지 불문율이 ‘키크는 공을 차기 전에 절대로 골키퍼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려움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한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에 포위된 엘리사와 이스라엘 군대이야기가 등장한다. 아람 군대는 연이은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다. 이튿날 엘리사의 종이 시야에 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종의 모습과 달리 엘리사는 의연하게 그 상황에 마주하며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종의 눈을 여시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준비된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다. 닫혀 있던 그의 영적 눈이 열린 이유와 그가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의 손에 감정이 쥐어져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감정이 우리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이 주는 두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사무엘의 기도

그런데 엘리야가 책임져야 할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궤가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 누워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고, 섬기려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 천 명의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려는 마음조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물러는 “제가 이 고아들을 섬겨야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 주겠다”(시 81:10).

조지 물러가 고아들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외에도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한 번 서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웃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장소만 옮겨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려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영혼

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혼동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음성으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여러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우리를 움직이는 네 가지인데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 옛 육신의 음성,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이 네 가지 음성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심계명만 들이대도 사탄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사탄의 음성은 교묘하게 자신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고, 헌신하지 않도록 하고, 섬기지 않도록 합니다. 세상은 ‘너를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존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음성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이나 상처로부터 시작된 습관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런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성이든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 옛사람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

런데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음성은 소아시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선한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선한 뜻을 따라가다가 육신의 음성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처럼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일은 하나님을 조인을 자동으로 인출해 주는 기계처럼 바꾸거나 성경을 마술사의 수정구슬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엇이 다른 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시간 낭비(Wasting time with God)>라는 책 제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만큼 소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삶에서 듣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곽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 새물중학교 교사)

아이들이 화가 나 있다.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욕설이 난무한다. 게임과 스마트폰은 이미 중독 수준을 넘어섰으며, 왕따를 비롯한 각종 폭력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숙제와 공부 양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화나게 하고 있다.

열 달 동안 최고의 태교로 잘 키웠다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는 내 아이에게 부모들은 무어라 축복의 말을 전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그저 감사하고 행복했다. 누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운운할 것인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덕지덕지 붙은 부모의 욕심을 기억해야 한다.

화로 가득 찬 아이들의 입에는 “몰라, 짜증나,

귀찮아”가 늘 배어 있다. 표정은 시무룩하고 지쳐 보인다. 어쩌면 아이들보다 화가 많이 난 어른들은 “지금 공부할 때가 좋다. 너희만 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라며 아이들의 삶을 쉽게 재단해 버린다. 화난 아이들 뒤에 더 화난 부모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톨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화란(和蘭)’으로 불렸다. 프랑스를 ‘불란서(佛蘭西)’, 스페인을 ‘서반아(西班牙)’라고 부르는 것처럼 홀란드(Holland)의 중국식 발음이 화란(和蘭)이다. 여러 조사에서 화란(네덜란드)의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니세프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웰빙지수’에서 여러 차례 1위에 올랐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다. 아이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가정이라고 믿는 화란 부모는 열이면 열 모두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의 행복한 삶’이라고 꼽는다. 성적보다 친구와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화란 부모들의 관심은 하나같이 아이가 행복한가 여부다. 행복한 현재가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화란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

화난 아이들 vs 화란 아이들

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이 아이에게 있음을 알려준다. 화란 부모가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운동이다. 평일 대낮에도 체육관에서 화란 아이들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이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생기는 노염과 답답한 감정을 ‘화(火)’라고 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일차적으로 부모가 다뤄줘야 한다. 교사가 이해해주고 먼저 줘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정하다. 부모나 교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다스려주셔야 한다. 주의 보혈로 덮여 주셔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덮어주심을 보아야 한다.

한때 웃음치료를 봉사 활동을 했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실컷 웃고 또 웃는 것이 활동의 모든 것이었다.

“월요일엔 원래 웃고, 화요일엔 화가 나고 웃고, 수요일엔 수시로 웃고, 목요일엔 목 터져라 힘껏 웃고, 금요일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엔

일엔 토할 때까지 웃고, 일요일엔 일평생 웃으며 삽시다. 하하하”

그러나 웃음치료 같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 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우리 편에서 노력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기쁨, 영원한 희락의 원천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준비되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면 된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 기쁨을 소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알팍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 참 소망을 소개해야 한다. 참 기쁨으로 즐겁게 뛰놀며 신나게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소개해야 한다.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 손 꼭 잡아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

화란 아이는 정상이 아니다. 원래부터 아이들은 그 자체로 화란의 톨립보다 예쁘고 화사한 존재이다. 화란의 풍차가 바람에 자신을 맡기듯 성령의 바람에 인생을 맡겨야 한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다음세대여야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Acts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9년 3월 31일(주일) | 제1239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보 하나로 섬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광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광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CMN라파티 네팔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12일~19일

분야: 산부인과, 치과외사, 약사, 일반 봉사자

비용: 160만원 예정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CMN시온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6일~14일

장소: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비용: 의사 50만원, 일반인 25만원(항공권

별도)

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어린이사역, 일반

봉사자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살롬팀 치과외사 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화성M센터(외국인 무료진료)

문의: 추적금 팀장(010-4739-8474)

엄빠랑 바يب을 코딩

일시: 4월 13일~6월 15일 매주 토 오전

9:30~12:00

신청: onnurismart@gmail.com

이름/부모님 전화번호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과 부모

중 1인

문의: 02-3215-3651

창조신앙아카데미

일시: 5월 15일~6월 12일 오후 7시~9시

장소: EM전시관(신동아센터 뒷편)

문의: 창조과학선교팀(010-7292-2349)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CGNTV
개국 14주년14
개국 14주년성령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성도님들과 함께한 14년의 미디어선교,
순수복음콘텐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2019년 **CGNTV** 신규 프로그램>

낮은 곳에서 피는 봄

3.1운동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 배우 김혜자
3월 3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실전 가정예배!
MC : 가수 이무송
4월 7일(주일)
오후 8시 30분 첫방송

CGNTV 휴먼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5월 방송 예정

*CGNTV 드림통은 캠퍼스별 드림통 수거함에 넣어주세요